

# “바이를라(고맙습니다) 몽골리아~~”

글 **신슬기** 서울아산병원 인공신장실 간호사



몽골 도착 둘째 날, 진료 시작 전에 몽골의 초원과 맑은 하늘을 배경으로 단체사진을 촬영한 의료봉사단. 왼쪽 두 번째 빨간 가방을 메고 있는 이가 필자다.

주위사람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으며 살았던 어린 시절, 나의 큰 기도 제목 중 하나는 ‘도움 받은 것보다 더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였다. 2011년 캄보디아 의료봉사를 시작으로 여러 나라에 의료봉사를 다니면서 그 나라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온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받은 도움과 따뜻한 마음이 더 많았다. 그래서 그걸 보답하기 위해 시간이 날 때마다 의료봉사의 문을 다시 두드리는 것 같다.

이번 몽골 의료봉사에 참여한 계기는 서울아산병원 신장내과 김순배 교수님의 추천 덕분이었다. 평소에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는 교수님이셔서 이번 의료봉사에 같이 가자고 하셨을 때 몽골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쉽게 결정할 수 있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몽골 출발 5개월 전부터 사전준비

몽골의 정식 명칭은 몽골리아다. 몽골(Mongol)이란 말은 원래 ‘용감함’이란 뜻을 지닌 부족 이름이었는데, 몽골 부족이 칭기즈칸에 의해 통일된 이후 계속 발전해 나가자 부족명 자체가 민족명이 되었다고 한다. 간혹 몽골을 몽고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중국의 중화사상 때문에 한자로 어리석음 몽(蒙), 낡을 고(古)를 써서 몽골을 어리석은 민족이라고 낮추어 부르는 말이라고 하니 몽골이라는 바른 표현을 사용해야겠다.

지난 2월 말에 몽골 의료봉사단을 이끌어주실 비뇨기과 송채린 교수님, 응급의학과 이윤선 교수님과 첫 미팅을 갖고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잡은 후, 3월 중순 서울아산병원의 인트라넷인 아산넷 게시판에 모집 공고를 내어 40명(의사 9, 간호사 11, 약사 2,

울산의대 학생 10, 직원가족 8명)의 팀이 꾸려졌다. 처음에는 몽골 수도인 울란바토르에서 버스를 10시간 타고 고비사막 부근에 가서 의료봉사 활동을 할 계획이었으나 팀원이 처음 예상보다 많아져서 진료지를 무릉 부근으로 옮기고, 진료지까지의 이동도 버스가 아닌 국내선 전세기로 바꾸었다. 덕분에 우리 병원팀 40명과 현지 통역팀 10명이 50인승 비행기를 전세 내어 울란바토르에서 무릉까지 이동하는 호사를 누리게 되었다.

5월 16일 첫 모임을 시작으로 2주 간격으로 모임을 가지며 서로 소개하고, 업무를 나누어 준비를 해나갔다. 해외 의료봉사가 처음인 분들과 경험이 많은 분들이 적절히 모여 첫 의료봉사에 대한 기대감과, 그 동안의 경험들을 통해 느끼고 배운 점들을 나눌 수 있었다. 출발 한 달 전부터는 매주 모여서 몽골 의료봉사 때 사용할 물품과 약품들을 선박으로 미리 보내고, 우리 병원 몽골 코디네이터 김은진 선생님을 초청하여 몽골 문화와 기본 에티켓, 현지 아이들에게 보건교육 할 때 알려줄 손씻기 노래를 몽골말로 바꾸어 배웠으며, 현지 가이드를 해주실 박관태 선교사님과 스카이프 화상미팅을 하면서 더 탄탄하게 준비했다.

출발 하루 전 청천병력 같은 일이 생겼다. 현지에서 우리를 가이드 해주기로 한 박관태 선교사님이 어머니의 건강 문제로 급히 한국으로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러나 늘 침착하고 꼼꼼하게 모든 일정을 체크하시는 송채린 교수님이 계시고, 현지에서 새롭게 우리 팀에 참여하게 된 정문옥 선교사님과 최용현 목사님, 신은혜 사모님의 격려가 있어서 곧 평정심을 찾게 됐다.

## 세미나 개최해 최신 의학정보 전달

8월 5일 오후, 몇 가지 의료장비와 미처 보내지 못한 일부 물품과 약품을 40명이 나눠 담고 몽골로 떠났다. 혹시 우리가 가진 물품 중에 몽골에 들어갈 때 문제가 생기면 어쩌나 조마조마 했는데, 결국 몽골 울란바토르 공항에서 우리 가방 하나가 잡혔다. 가방 안에는 몇 가지 의료용품과 약품, 단체복과 아이들에게 줄 선물 등이 들어있었다.

사무실에 가서 가방 안 검사를 위해 그 큰 가방을 킁킁대며 겨우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가방의 지퍼를 살짝 열자마자 아이들 선물로 준비했던 배지가 가방 옆으로 우르르 튀어나왔다. 그러자 직원은 가방을 더 열어보지도 않고 통과시켜 주었다.

울란바토르 칭기즈칸 국제공항에서 잠시 기다렸다가 국내선을 타고 무릉으로 이동하여 숙소로 도착하니 새벽 3시쯤이었다. 늦은 시간이라 다들 피곤했을 텐데도 다음날 아침 모두 일찍 일



봉사단은 현지로 떠나기에 앞서 서울아산병원 몽골 코디네이터를 초청해 몽골 문화와 기본 에티켓 등을 배웠다. 몽골에서 소화기내과 의료진이 환자를 진료하는 모습(위부터).

어나 바로 진료 준비를 시작했다. 첫날의 진료는 무릉의 도립병원에서 했다. 우리 팀은 비뇨기과와 정형외과, 치과, 산부인과, 내과 진료와 초음파, 혈액 및 소변검사, 엑스레이, 내시경 검사를 했다. 아침 일찍 병원에 도착하여 진료실과 검사실, 수술실을 정하고, 그 앞에 안내판을 붙이고, 환자 맞을 준비를 했다. 첫날은 진료가 조금 늦게 시작된 만큼 늦게까지 진료했다. 진료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서 저녁식사를 한 후 진료 결과를 공유하고, 잘했던 점과 부족했던 점들을 나누고, 부족했던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업무 흐름을 다시 정리하고, 업무 배치를 변경하기도 했다.

둘째 날은 몽골의 멋진 배경을 뒤로하고 단체사진 몇 장을 찍은 후 진료를 시작했다. 전 날의 경험 덕택에 다들 마음의 여유와 노하우가 생기고, 지난 하루가 우리 팀을 더욱 탄탄하게 만든 것 같았다. 일부 학생들은 어린이팀을 꾸려 몽골말로 손씻기 노래를 가르치는 한편 비누와 풍선 만들기, 종이 접기 등을 하며 현지 아이들과 놀이시간을 갖고, 후원 받은 선물을 아이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오후에는 의학 및 간호 세미나를 개최하여 현지 의료진에게 최신 의학정보와 간호 관리에 대한 정보를 전했다. 무릉 도립병원에서 이틀간의 진료를 마치고 현지 의료인들과 저녁식사를 함께하며 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봉사단의 치과 진료와 알렉 에르덴 보건소 앞에서 진료 차를 기다리는 몽골인들(왼쪽부터).

셋째 날 진료는 알렉 에르덴 보건소에서 했다. 보건소 가는 길에 푸른 자연과 방목하는 양과 염소, 말들을 보면서 그 자연 속에서 사는 사람들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졌다. 알렉 에르덴 보건소는 그 지역 군수님의 특별 요청으로 방문했는데, 주민들은 보건소에서 미리 만들어준 번호표를 들고 보건소로 왔다. 언제 받았는지도 모를 꼬깃꼬깃한 번호표를 소중하게 들고 진료를 보러 온 환자들을 보니 어디가 아프든 빨리 나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마음에서 먼저 나왔다.

오전 진료를 마치고 군수님께서 닭고기 맛이 나는 생선수프와 만두를 점심식사로 제공해주셨다. 물이 귀한 나라에서 우리를 위해 특별히 물고기 요리를 대접해준 군수님의 배려에 감동했다. 진료 중에도 우리가 지칠까봐 과일과 치즈, 커피 등의 귀한 음식들을 가져와서 우리를 대접해주는 보건소 직원들께도 정말 감사했다. 저녁식사 때는 양까지 잡아서 양고기를 대접해주고, 지역 가수 2명을 초청해 노래 선물까지 주었다. 가수들에 대한 우리 팀의 반응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아직도 그때의 감동이 눈앞에 선다.

## 아가페 기독교병원에 내시경 장비 기증

이렇게 3일간의 짧은 진료를 마치고 흙스골 호수 주변의 토일록 캠프에서 휴식시간을 가졌다. 몽골에 갔으니 쏟아지는 별들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함께 말과 배를 타는 것이 우리 계획이었는데 하루 종일 비가 와서 결국 캠프장 주변을 산책하며 쉬었다. 사실 몽골에 가서 돌아오는 날까지 매일 낙마 사고 환자가 발생해서 내심 걱정이었는데, 팀원들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말을 안 타게 됨으로써 사고 없이 쉴 수 있어 감사했고, 주변을 산책하며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할 수 있어 또 한번 감사했다.

마지막 날 울란바토르에서 묵었던 숙소는 지금까지 의료봉사를 가서 묵었던 숙소 중 가장 좋았다. 몽골 국내선 전세기 탑승시

간이 현지 사정에 의해 변경되면서 국내선 회사에서 좋은 숙소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약해 주었다. 호텔의 시설과 아침식사가 한 주간의 피로를 씻어주는 것 같아 참 감사했다.

호텔에서 충분히 쉰 후 울란바토르 시내에서 식사와 시내 구경을 하고 박관태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아가페 기독교병원에 들렀다. 투석과 호스피스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다. 투석은 한 번만 해도 많은 돈이 드는데 이런 치료를 1주일에 3회나 해야 하니 몽골 환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 병원에서는 환자들에게 무료로 혈액투석 치료를 해준다고 했다.

이 병원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가 내시경 장비를 구비하는 것이었는데 이번 봉사를 통해 이곳에 내시경 장비를 기증할 수 있게 되어 참 감사했다. 아가페 기독교병원 방문을 끝으로 우리는 모든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번 몽골 의료봉사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봉사활동을 준비하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겨 당황할 때도 많았지만, 그 또한 너무나도 감사하게 바뀌어서 더 감사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몽골에서 많은 사진들을 담아 왔지만 마음속에 남겨진 감동에는 비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감사와 즐거움이 있었던, 평생 잊지 못할 시간이었다. 의료봉사를 다녀올 때마다 과연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이번 의료봉사도 그랬다. 수백 장의 사진을 보고, 경험담을 듣는 것보다 직접 가서 경험하는 것이 수만 배의 감동이 있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를 적극 추천한다.

끝으로 우리 팀을 따뜻한 사랑으로 잘 이끌어주신 송채린 단장님과 밝은 웃음으로 서로 격려하며 봉사에 열심히 참여한 우리 모든 팀원들, 현지에서 힘써주신 선교사님들과 통역 도우미분들, 그리고 우리 팀의 봉사를 위해 기도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이클라(고맙습니다) 몽골리아!”